

유방암이 동반된 피부근염 환자에서 발생한 최소병변신증 1예

포항성모병원 내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¹

임성택, 오동호, 김용섭, 김용진¹

피부근염은 인구 1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특발성 염증성 근육병증으로 혈관에 면역복합체가 침착되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암 발생율이 일반인보다 5-7배가 높다. 이질환은 피부와 근육의 병변이외에도 관절, 폐, 심장 및 교원성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나 신장의 침범은 매우 드물다. 저자들은 유방암을 진단받은 30세 여자 환자에서 피부근염에 동반된 최소병변신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30세 여자환자가 2주전부터 발생한 안면부종과 근육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3개월 전에 개인 외과의원에서 조직검사로 확인된 유방암을 진단받은 상태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진찰소견상 안면에 심한 부종과 나비모양의 뺨 발진이 있었으며 양측 수부의 근위지 관절과 중수지 관절에서 고트론 구진(Gottron's papule)과 흉부에서 흉반성 발진이 관찰되었다. 입원당시 시행한 말초 혈액검사는 정상이었고 생화학 검사상 총단백/알부민 7.3/4.2g/dL, BUN/Cr 9.8/0.9, 총콜레스테롤 283, 중성지방 209, 공복혈당 108mg/dL, AST/ALT 67/66 IU/L였으며 전해질은 정상이었다. 요 검사상 protein(+), glucose(-), RBC 0-2, WBC 0-5/HPF였고 24시간 요 protein 2.7g 이었다. 면역 혈청검사에서는 HBsAg, HBsAb, HCV Ab, VDRL, HIV Ab, cryoglobulin, Anti nuclear Ab, Anti ds DNA, Anti cardiolipin Ab, SS-A/Ro Ab, SS-A/La Ab, RNP-Ab, Sm-Ab, ANCA, APF는 모두 음성이었고 기타 C3, C4, α FP, CEA, CA125, CA19-9는 정상이었다. 혈청 CPK 1093, LDH 572 IU/L였고 Rheumatoid factor와 myoglobin 은 각각 96IU/ml, 94.6ng/ml로 약간 증가되어 있었으며 근전도검사에서 하지 근육에 세동전위 소견을 보였다. 내원 1주일째에 시행한 신조직검사상 광학 현미경검사와 면역 형광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었고 전자 현미경 검사에서는 foot process의 소실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내원 한달째에 근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피부근염을 진단하였고 환자가 진신쇠약과 근육통을 심하게 호소하여 스테로이드 충격요법과 유지요법을 시행한 후에 단백뇨가 소실되고 부종이 감소하였으며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으나 본인이 원하여 유방암의 수술을 위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였다.